



1 처음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25 추수감사주일
오늘(2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마켓 티켓판매] 예배 후/교회 입구
*바자회는 티켓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구매하신 티켓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세곡동 주민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겨울 난방비와 김장 지원에 전액 사용됩니다.

3 예사남 완주예배
11.8(토) 오전 8시 30분 교육관

4 11월 교회를 위한 기도문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혼
김동하 군/변지영(김정수) 집사의 장남 / 11. 8(토) 오후 3시
소노펠리체 컨벤션 다이아몬드 홀(강남구 삼성동 159-6)



임은진 집사



정선주 성도

새가족 등록 절차

- 1 새가족실(B1)에서 신청서 작성
- 2 일대일 양육
- 3 속회(소그룹) 배정
- 4 양육수료후 등록교인이 됩니다

임마누엘교회 새가족국

02.3411.1918

예 배 안 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본당
유아유치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청소년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본당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시30분	본당
수요예배	오전	10시30분	본당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시	본당
속회예배	목-토		

오 시 는 길



[외부 주차장 이용]

모빌리티 주차장
강남구 방고개로24길 61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잠비아
이준 위문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신종현 양승경 선교사 T국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시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국내 영파교회 교병선목사
익산벨엘교회 마준철목사
예교회 박정현목사
엘리사교회(군선교) 최이용목사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극동방송
행복한선교회
성남의료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경배와찬양	다함께	
*찬양	내가 만민중에	다함께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대표기도	1부 박양수 원로장로	2부 김현식 원로장로
	2부 김현식 원로장로	
성경	누가복음 17:11-19	다함께
특송	1부 김은희 속 2부 남성 중창단	
설교	은혜의 문을 여는 감사	김영광 목사
*봉헌과결단	은혜	다함께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 기도

11/9 1부 정기평 권사
2부 전병희 장로

11/16 1부 정영락 권사
2부 마승초 장로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디모데후서

김영광 목사
유한나 목사
김경현 목사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교회를위한기도회]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10:30
[수요전도] 오후 1:00
[목요전도] 오후 6:00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00
[속회예배] 목-토

교회, 나의 기도원

화 ~ 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정 예 배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 5)마침기도

찬양_은혜
말씀_누가복음 17:11-19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의 한 마을에서 나병환자 열 명을 만나셨습니다. 이들은 멀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하고 외쳤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자들의 몸과 상태를 보고 그들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판결해 주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병환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여 가는 길에 놀랍게도 몸이 어느새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 이상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자마자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제사장에게 먼저 간다면 그동안 나병환자로 살아가며 받았던 불이익에서 해방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보다 먼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하기 위해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가정예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19절)” 감사가 그를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흘러나온 열매였습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그 믿음은 결국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며 은혜를 기억하는 힘입니다. 열 명 중 아홉은 육신의 병은 나았으나, 영혼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 사람, 그는 감사함으로 은혜를 완성했고,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 작은 기적,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홉 사람처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합니다. 감사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열 명의 나병환자 중 단 한 사람만 감사하러 돌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있습니까?
- 2) 우리 가정이 더 자주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헌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헌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집 / 감사헌금-김바울집
주일헌금-김바울주 / 선교헌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울일 / 건축헌금-김바울건